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9.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**獨 정부, 러시아 야권 지도자 「나발니」 독극물 테러 주장**
 - 9.3 獨 정부는 「푸틴」 정부에 비판적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「알렉세이 나발니」가 혼수상태에 빠진 원인이 화학신경작용제인 노비축(70년대 舊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) 때문이라며 독극물 테러의 희생자라고 발표
 - * 9.7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언어적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등 호전
- **英 싱크탱크, 대형 ISIS 온라인 도서관 발견**
 - 9.4 英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(ISD)는 ISIS 운영 디지털 라이브러리(일명 '칼리프의 저장고')를 발견, 이곳은 9·11 테러 등 각종 공격 세부사항 및 ISIS 철학과 생활방식 등 최소 9만 건의 콘텐츠를 제공중이라고 발표
 - * 방문자는 주로 아랍권의 18~24세 남성으로 소셜미디어를 경유하여 접속

미 주

- **美 국토안보부, '백인 우월주의' 가장 중대한 테러 위협 평가**
 - 9.4 美 국토안보부는 '2020 국토 위협 평가' 보고서에서 백인 우월주의 등 자국내에서 생겨난 극단주의 성향이 ISIS나 알카이다 등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 못지않게 美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평가
 - * 同 보고서는 '19년 발생한 '국내 폭력적 극단주의자'의 공격 대부분이 '백인 우월주의자'에 의한 것으로 분석(공격 16건 中 8건, 사망 48명 中 39명)
- **美, 극우 반정부단체 '부갈루'* 조직원 2명 테러 혐의 기소**
 - 9.5 美 검찰은 극우 반정부단체 '부갈루 보이스' 회원 2명에 대해
 - △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'하마스'에 무기 공급 및 용병 지원, △ 법원 폭파, △ 정치인 살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
 - * 총기규제 반대·백인우월주의 등을 주장, '하와이안 셔츠'를 입고 시위에 참여

아 · 태평양

- 필리핀, 테러방지 위해 軍犬부대(k9) 배치
 - 9.7 필리핀은 “올해 8.24 발생한 술루州 홀로섬 자폭테러(사망 15, 부상 75)와 유사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마닐라 전역에 폭발탐지 훈련을 받은 軍犬부대 ‘k9’을 배치한다”고 발표

중 동

- 사우디, ISIS 추종 테러범 3명 사형 선고
 - 9.6 사우디 특별형사재판소는 평소 ISIS를 추종하며 사우디 전역에서 여러 테러에 가담하여 보안군을 암살하거나 사원·정부기관 등에 대해 폭탄테러를 모의한 자국민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발표
- 이스라엘, 하마스 추종 테러를 모의한 자국민 체포
 - 9.7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폭탄테러를 모의한 자국민 2명을 체포, 이들은 가자지구에서 폭탄제조 및 공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위치 등의 정보를 하마스에 제공했다고 발표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 환경단체, 자국내 목재 수출자금 테러단체로 유입 경고
 - 9.7 나이지리아 현지 환경단체는 “지난 4년간 對중국 자단나무 목재 수출과 관련한 자금 10억弗 상당이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로 유입되고 있다”고 경고
- 보코하람, 자폭테러 악용 목적 ‘아동’ 조직원 지속 영입
 - 9.5 다국적연합군은 “보코하람이 조직내 전투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‘아동’을 전투원으로 영입하여 자살폭탄 테러 등에 투입하고 있다”고 발표

아프간, 국방부 청사 인근 연쇄 폭탄테러

- '16.9.5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2건의 연쇄 폭탄테러로 국방부 고위관계자·보안군·경찰 등 24명 사망, 91명 부상



- 테러범 2명이 원격조정으로 폭탄을 1차 폭발시킨 후
-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폭발현장으로 달려가는 보안군·경찰·시민들을 겨냥한 2차 자살폭탄 테러 감행
- 테러 직후, 「자비홀라 무자히드」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국방부와 경찰서를 겨냥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“아프간의 적들이 전투력을 상실하자 고속도로, 이슬람 사원, 학교,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”고 비판

<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>
(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)

- (설립목적) 자금세탁 억제 방법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G7 파리정상회의에서 설립('89), 37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를 통해 전세계 200여개 국가를 관할(우리나라는 '09년 가입)
- (주요임무) △금융관련 국제기준 수립 및 각국의 이행 실태 평가, △비협조 국가·국제기준 미달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, △테러자금 조달·세탁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응수단 개발, △가상자산 등 신규위협요소에 대한 정책 가이드 수립
- (테러자금 차단 주요활동)
 - '14.6 가상자산 주요 정의 및 자금세탁/테러자금모집 관련 잠재 위협 분석
 - '15.6 국제기준 적용방안 및 자금세탁/테러자금 식별 가이드라인 제정
 - '19.6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확정 및 공개성명서 채택
 - '20.6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 점검